| 불자 세상보기 |

공감·배려로 포항 지진 극복을



선업 스님
통담아카데미아 원장

사무량심 '자비희사' 중요
첫 덕목 '자애'는 배려서 시작
연민과 기쁨, 공감서 나와

지진 의한 심리적 상처
함께 치유해 나가야

나눔회향 모임 증가추세
동체대비 실천 기간으로
함께사는 세상 위한 보시를

만공 스님은 '온 세상은 한 송이 꽃'이라 했다. 세계를 연결된 한 몸으로 보는 이 같은 동체(同體)의 관점은 우리 모두를 인드라망의 그물코처럼 깊이 연결되어 있는 한 생명으로 보게 한다. 모든 존재가 한 몸 한 생명이라는 자각은 자연스레 만물에 대한 깊은 관심으로 이어지고, 알아차림이 깊어질수록 서로가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나와 둘이 아닌 존재와의 깊은 연결은 사무량심 '자비희사'를 바탕으로 한 나눔을 통해 사회적으로 회향된다.

사무량심의 첫 번째 덕목인 자애는 감각적 욕망이 제거된 사랑을 말하며 치유적으로 보면 존중과 배려이다.

포항에 지진이 난 상황에서 수학능력시험을 일주일 연기한 결정은 좋은 배려의 예라고 하겠다.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라는 사고방식을 가진 이들은 이 결정에 동의하기 어려워 가슴앓이를 했다고 한다. 존중과 배려보다 사적 이익이 우선이었기 때문이다.

두 번째와 세 번째 덕목인 연민과 기쁨은 공감에 해당된다.

지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이들의 아픔에 공감한 이들은 현장 자원봉사와 성금 마련 등의 보시와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더불어 지진으로 인한 심리적 상처를 공감하여 마음을 어루만지고 꿰매어주는 이들도 있다. 〈유마경〉에 나오는 '중생이 아프니 내가 아프다'의 패러디로 짐작되는 '네가 아프니 내가 아프다' 드라마 대사에는 상대의 물리적 상처에 대한 공감으로서의 아픔이 묻어난다. 이런 공감이 가능한 심리치료사들은 포항 지진 피해자들의 심리적 트라우마의 감소를 위해 힐링 콘서트도 열고 현장 상담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타인의 심정을 헤아려 마음의 무게를 줄이는 작업의 원동력이 바로 공감이다.

네 번째 덕목인 평정은 평등에 기초한 일치감이다. 안타깝게도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포항의 지진에 대해 다양한 막말을 쏟아내면서 지진에 이어진 여진으로 가슴 아픈 사람들을 더욱 멍들게 하고 있다. 이 막말들의 기저에는 너와 나로 편을 가르고 상대에게 책임을 지워서 무엇인가 이득을 보려는 탐욕의 마음이 도사리고 있다. 상대도 나처럼 행복하기를 원하는 다르지 않은 존재로 본다면 두 손이 가슴에 모여 합장으로 하나 되는 중도 정견의 일치감을 자각하게 될 것이다.

〈아미타경〉에 보면 공명조 이야기가 나온다. 몸 하나에 머리가 둘 달린 이 새는 맛있는 먹이를 위해 서로 싸우다 '저 머리만 없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에 독이 든 음식을 상대가 먹도록 전략을 세운다. 그러다가 결국 한 쪽이 독이 든 음식을 먹어 온 몸에 독이 퍼져 결국 둘 다 죽게 된다. 우리는 하나가 죽으면 다른 하나도 따라 죽는 공동체 운명인 것을 왜 알지 못할까.

〈화엄경〉 십회향품에 금강당보살의 회향발원이 나온다. "온 누리 모두가 다 행복하소서. 나는 모든 중생의 집이 되리라. 그들의 고뇌를 없애주기 위해서. 나는 모든 중생의 귀의처가 되리라. 그들이 공포를 벗어날 수 있도록. 나는 모든 중생의 안락처가 되리라. 그들이 구경의 편안한 곳을 얻을 수 있도록. 나는 모든 중생의 광명이 되리라. 그들이 지혜의 빛을 얻어 무명의 어둠을 없앨 수 있도록. 나는 모든 중생의 길잡이가 되리라. 그들에게 걸림 없는 큰 지혜를 주기 위해서."

요즘 나눔으로 회향하는 모임들이 많이 늘고 있다. 연말연시는 한 몸인 동체대비를 실천하는 기간이다. 이 기간 동안 십시일반의 정신을 살려 포항의 지진 피해 지역의 아픈 이들을 공감하고 배려하여 함께 편할 수 있도록 보시하여 우리 국토를 정토로 장엄했으면 한다.

社說

납세 준비, 萬全 기하자

종교인 과세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발표되면서 해묵은 종교인 과세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2년 유예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함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예정대로 종교인과세가 시행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종교인소득 과세제도 보완방안'을 발표하고, 소득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정부와 종교계의 입장 차이가 가장 컸던 '종교활동비'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이 눈에 띈다. 당초 기재부는 모든 종교인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포함시켰고, 불교의 경우 보시 · 법사비 · 강사비 · 기도집전비 · 수행비 등이 해당됐다. 이에 따라 불교계는 주거 · 의료 · 교육 등을 위해 종교단체가 보조하는 비용은 소득으로 볼 수 없고, 과세 · 비과세 구분을 벗어나 제외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일정부분 합의점을 도출했다.

문제는 이 같은 기재부 최종안 발표가 시행을 한 달 남짓 앞두고 이뤄졌다는 점이다. 불교를 비롯해 모든 종교계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조계종은 종교인과세 TFT를 구성하고 소임자에 대한 세금 일괄납부, 매뉴얼 제작 등을 검토하는 등 각 종단별로 납세 준비를 하고 있다.

분명 넉넉하지 않은 시간이다. 하지만 납세평등주의는 종교인을 떠나 국민 누구라도 동등하게 적용돼야 한다는 점에서 거스를 수 없는 시대 흐름이다. 어느 정도의 시행착오는 감안해야 하겠지만, 교계에 혼란이 없도록 각 종단은 만전을 기해야 한다. 부처님 가르침을 따라 수행정진하는 스님들이 '탈세'의 오명을 얻지 않도록 말이다.

이제 현대적 출가 문화 고민해야

출가자 감소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속도가 너무 빠르다. 2016년 한해 출가자 200명 선이 무너진 후 2년여 만에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했던 150명 선도 무너지게 될 상황이다.

조계종 교육원에 따르면 현재 내년 사미 · 사미니계 수계 대상 행자는 80여 명. 여기에 평균 중도퇴사율 27%를 감안하면 60여 명 가량이 수계를 받게 된다. 이럴 경우 내년 출가자는 120~130명에 그칠 것이라는 게 조계종 교육원의 분석이다.

조계종 교육원이 11월 2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 생에 가장 빛나는 선택, 출가'를 주제로 내년 상반기 출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힌 것은 현재 출가자 감소를 더 이상 팔짱 끼고 쳐다볼 수 없어서다.

조계종 교육원은 내년 1~2월을 중심으로 출가를 독려하는 홍보를 본격적으로 진행한다. 포스터 2500부를 제작해 템플스테이 사찰, 군법당, 대불련, 동국대 등에 배포하며, 당장 12월부터 종단 및 교구본사 홈페이지, 신문 · 방송 등에 출가 모집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다.

출가자 모집을 위해 종단이 나서서 홍보를 하는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그만큼 어려운 결정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출가 홍보도 좋지만, 이제 필요한 것은 현재의 출가 문화가 현대인에게 맞는가에 대한 고민이다. 출가한 행자는 귀중한 인적 자원이라고 여기기보다 후원에 보낼 절집 인력 정도로 여기지 않는지 생각해봐야 한다.

공고만 할 것이 아니라 출가자들이 잘 안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더불어 종단 차원 상설 행자교육원 설립도 이제는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사람이 없으면 종교도 없다. 미래지향적 출가 문화 조성에 나서야 할 때다.



空으로 본 세상만사

'절 오빠' 경전 주인공 된다면

정상교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 연구교수

방송을 시청하다보면 아이돌 그룹 멤버들이 눈에 띌 만큼 크고 예쁜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나오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단순한 패션 아이템의 하나인지 출연자 개인의 신앙심 표출인지는 알 수 없지만 별다른 저항감은 없다. 즉, 십자가는 특정 종교를 상징하는 아이콘임에도 하나의 패션 아이템으로써 무리 없이 받아들여진다는 의미다.

그런데 아주 젊은 연예인이나 인지도 높은 유명인사가 공영 방송에 불교를 상징하는 卍 문양의 장신구를 패션 아이템으로, 혹은 개인적 신앙심의 표출로 착용하는 예는 거의 본적이 없다.

'십자가 목걸이를 한 아이돌 그룹' '일요일, 혹은 크리스마스 예배에 참석한 교회 다니는 아이돌 그룹'은 당연해 보이기까지 한다. 그러나 '절 문양 목걸이를 한 아이돌 그룹' 혹은 '부처님오신날 법회나 백중 천도재에 참석한 아이돌 그룹'은 어딘가 모르게 그림이 어색하다. '교회 오빠'는 당연한 단어이고 '절 오빠'는 상식을 뒤엎는 말로 개그의 소재가 되어버렸다.

1,500년 역사의 한국불교는 긴 역사만큼 우리 전통문화를 보존, 계승하는 역할까지 하고 있지만 바꾸어 말하면 옛날 느낌이 가득한 종교라는 함정에 빠질 수도 있다. 하지만 불교사상사의 변곡점을 살펴보면 불교는 사회의 새로운 변화를 함께 호흡하였다.

대승불교를 대표하는 경전 중 하나인 〈법화경〉의 관세음보살 보문품은, 관세음보살님의 가피력에 의지해 극복할 수 있는 7가지 환란을 나열하고 있다.

그 중 '금은보화를 구하기 위해 먼 바다에 나갔다가 태풍을 만나는 풍난(風難)'과 '귀중한 보물을 가지고 위험한 길을 가던 수많은 상인들이 도적을 만나는 적난(賊難)'은 당시 불교가 어떤 그룹들에게 지지되어 왔는지 엿볼 수 있게 해준다.

십자가 비해 종교색 강한 卍 문양
본래 불교는 유연성 무궁무진했다

풍난의 경우는 인도와 아라비아 반도를 오가는 해상 무역 종사자들을, 적난의 경우 로마나 중국 등과 육상 무역을 하는 대상단(大商團)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해상 및 육상을 통해 외국과 무역을 행하는 집단은 소규모 상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들은 지금으로 치면 거대 해운 기업과 유통 운송 기업에 해당한다.

이러한 양상은 〈법화경〉 신해품(信解品)의 유명한 장자궁자(長者窮子) 비유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장자(長者)'라는 말은 상인(商人)을 의미하는 산스크리트어 '슈레스틴'의 번역어다. 경전은 구체적으로, 그 장자의 이자가 다른 나라까지 미치고, 그의 집에는 상인과 고객이 매우 많았다고 서술하고 있다. 이는 당시 〈법화경〉이 유포된 지역과 시기가 금융업 및 화폐 경제가 매우 발달되어 있었음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법화경〉 및 대승불교를 지지한 집단들은 거대 금융 기업에 해당하는 대자본가 집단이었다.

연구에 따르면, 대승불교의 발상지라고 추정되는 고대 남인도의 여러 도시에는 왕보다 더 부유한 해상 무역상들이 존재했고 그들 중 많은 이들이 불교도였다고 한다. 즉 불교는 이러한 신흥 세력들을 경전의 주인공으로까지 등장시키는 유연성을 발휘하며 불법(佛法)을 전파하였던 것이다.

그렇다면 오늘의 불교는 언젠가 훗날 '아이돌 절 오빠'가 불교 설화(說話)에 한 축을 담당하는 주인공으로까지 등장할 수 있도록 또 다른 유연성이 필요한 건 아닐까 생각해 본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 · 세계화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겸 편집인 : 박종수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전 북 지 사 : (063)910-8977
부 산 지 사 : (051)405-9402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영혼의 세계 (빙의)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영가의 생각을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몸에 들어온 이유를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영가의 병이 사람에게 옮겨온 경우)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빛은 영가가 천상으로 가는 길이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조상영가, 전생영가로 인해 잡귀가 들어온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근육이 풀어지며 통증으로 고통 받는 분, 몸이 굳어지며 감각이 없는 분**,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풍수에 관한 모든 것 상담 가능 ◀

천 광 수 련 원 ☎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하기책자 5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명)
글쓴이 : 혜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20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전생의 빚을 소멸시켜 자신의 운명을 바뀌게 하는"

생전예수재기도의 중요성과 그 성취효과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생전예수재는 "왜" 필히 지내야만 하는가?
② 생전예수재 신청 및 집에서 기도하는 방법
③ 생전예수재 기도후 일어난 영험사례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 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768-8413